1 중국

1-1 중국 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시행 예고

■ 주요내용

- 2016년 6월 8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검역관리국에서《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》을 발표함. 해당 규정에 의거하면 중국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거나 수입된 모든 영유아 조제배합분유제품은 모두 등록 및 관리를 실행하며 신청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각 기업당 3개 브랜드 시리즈의 9가지 제품 브랜드를 초과해서는 안됨. 이 방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것임
- 현재 중국 103개 영유아 조제배합분유기업은 약 2,00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, 개별 기업이 최대 180여개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어 분유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식품 안전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. 이에 국가식품약품검역관리국은 2016년 6월 8일《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》을 발표함
- 해당 법규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선 국내 생산이나 수입산을 막론하고 모든 영유아조제분유는 등록 관리를 실행하여 신청인의 자격조건과 배합수량을 제한할 것임. 또한 기업의 악의적 경쟁을 피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안전한 구매를 유도할 것과 라벨표식을 규범화하고 광고 문구의 모호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. 예를 들면 초유의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"수입우유", "해외 목장" 등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쓰지 못하며 라벨 및 설명서에 "면역력 강화, 지능 발달 촉진"등 암시문구를 허용하지 않음

| 영유아 조제분유 제조사별 제품현황 |

Abbott(미국)	매일(한국)	Karicare(뉴질랜드)	Beingmate(중국)	Topfer(독일)	듀멕스(유럽)

시사점

- 2015년 9월 《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》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업계에서는 유아용 분유 수입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였고, 이에 따라 2016년 조제분유 수입 실적이 실제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함. 한국 조제분유 제조사는 자사 브랜드 뿐 아니라 중국 수출용 PB 브랜드를 평균 7~8개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, 중국 내 경소상들에게 있어서는 경각심을 가질 만한 발표임

작성 : 상하이 지사